

배포일시	2021. 5. 28.(금) 14:0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	담당자	부 장 김 연 희 교 수 송 창 근
		전화번호	064-780-6620 052-217-2835

##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-울산과학기술원, 황사에어로졸 감시, 기후변화 연구 역량 모은다!

- 국립기상과학원-울산과학기술원 기관업무 협약식 개최
- 황사-에어로졸 관측자료 공유, 동아시아 입체관측망 통합 표출 및 활용

-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(원장 김성균)과 울산과학기술원(총장 이용훈)은 5월 28일(금), 황사·에어로졸 통합 감시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.
- 협약의 세부 내용은 ▲황사·에어로졸 및 기후변화 감시·분석을 위한 관측자료의 기술 공유·공동활용 ▲교육 훈련 및 전문 인력 교류 ▲학술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논문 작성 등 기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.
- 국립기상과학원은 기후변화감시소 4곳(△안면도 △고산 △울릉도독도 △포항)을 운영하고 있으며, 세계기상기구(WMO)가 정한 에어로졸, 온실가스 등 총 36종의 지구대기감시자료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다.
- 특히, 첨단 관측 장비를 이용한 황사·연무 등 재해기상 및 기후변화 감시, 국제 기준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등 다양한 기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.

□ 울산과학기술원은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이라는 비전으로 첨단 기술 분야 연구와 함께, 재난 재해와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.

○ 최근 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개발사업 중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사업으로 ‘동아시아 입체관측망 통합플랫폼’을 구축하고 있으며, 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.

□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**고품질 관측자료와 기술 공유**는 물론, **입체 관측망 통합플랫폼을 개선**하고 **공동활용**함으로써 **황사·연무(기상청)**, **미세 먼지(환경부) 분석 및 예측**에 이바지하고, **장기간 기후변화감시자료를 활용한 기후변화 연구 협력이 활성화**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김성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“황사 등 재난 재해,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협력을 통해 **다양한 관측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합니다.**”라며, “상호 간의 협력을 통한 자료의 공동활용은 기상청의 황사 분석·예측 및 연구에 이바지할 것이며, **기후변화감시 및 원인분석과 관련된 공동연구를 통해 2050 탄소 중립 정책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**”라고 밝혔다.

□ 붙임: 국립기상과학원-울산과학기술원 업무 협약식 사진



| 국립기상과학원-울산과학기술원 업무 협약식 기관장 사진 |  
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(왼쪽), 김성균 국립기상과학원장(오른쪽)



| 국립기상과학원-울산과학기술원 업무 협약식 단체 사진 |